

---

# K 대학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정수준 · 진로준비행동 실태 조사

이숙정\*, 이에종\*\*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사회복지학과

##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 university

Sook-Jeong Lee\*, Ye Jong Lee\*\*

\*Dept. of Dental Hygiene, \*\*Dept. of Social Welfare Gimcheon University

---

**요약**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K 대학 치위생학과 1,2,3학년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K대학에 재학중인 치위생학과 106명을 대상으로, 사용한 측정도구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진로결정 척도, 진로준비행동 척도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주제어**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치위생학과, 조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ffect of self-efficacy,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of the college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1,2,3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6 university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in K university. The instrument employed were the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cale,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t-test, Regression analysis and the pearson correlation of the spss 19.0 version.

• **Key Words**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ental hygiene, Research

---

## 1. 서론

대학진학률이 40~50%대인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무려 79%에 달한다. 일반계 고교 졸업자의 경우 이 비율은 81.5%로 더 높고,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졸업생들까지도 71.1%가 직장 대신 대학을 선택한다고 한다[1]. 이는 고교 졸업 후 사회로의 진출보다 대학이라는 과정 후의 사회 진출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장래, 미래에 대한 전망 등으

---

\*\*교신저자 : 이에종(maximize126 @ hanmail.net)

접수일 2012년 3월 2일 수정일 2012년 4월 14일 게재확정일 2012년 5월 13일

로 인식되는 좀 더 나은 진로를 위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고 지원한 학과에서 전공과 인성을 배운다. 이러한 대학 과정은 졸업 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중요한 시기이다. 졸업 후 전공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학 재학기간이 사회에서 겪을 많은 일들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자기 실력을 쌓는 기간이어야 한다. 대학생이라는 기간 동안 정확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자기 능력을 쌓기 위한 노력들의 부족은 졸업 후 다른 경쟁자들보다 뒤처지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청년 실업률로 나타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7.5%에 달한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이 30만 4000명에 이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경기침체가 계속돼 새롭게 일자리를 얻는 취업자 수가 연간 32만명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 44만명 가량 늘었던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줄 전망이다[3]. 우리나라 전체의 취업을 저조는 전공외의 다른 장점과 능력을 지녀야 하는 스펙 쌓기에 중심을 두게 되고 시간외의 경제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학생활 동안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공과 여러 능력들에 본인 스스로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대학생활 동안 보완해야 하는 것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취업정보실과 대중매체,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취업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자격증 취득,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기타의 활동 등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3, 4].

이에 재학생들에게 대학 졸업에 앞서 진로준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이러한 자료는 진로(직업)에 대한 준비를 위한 진로결정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 2.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K대학교에 있는 치위생학과 재학생 1,2,3학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직접 자기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2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걸쳐 진행되었고, 응답한 설문지 총 106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6부를 제외하고 100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측정하기 위한 설문 도구를 사용하였다. 세 가지 도구 중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를 이은경(2001)이 대학생 뿐 아니라 중, 고등학생을 포함해서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타당화 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CDMSES-SF는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4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여 25~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진로결정수준은 Osipow 등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 CDS)를 고향자[5]가 우리 문화에 적절한 문장표현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진로준비행동의 측정을 위해서 김봉환[4, 6]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7, 8]. 본 연구내용으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03$ , 진로결정수준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90$ , 진로준비행동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40$ 로 높게 나타났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9.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간의 교차분석, 회귀분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간의 하위변인끼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총 100명의 치위생학과 재학생인 학생들의 응답자 중에서 남성이 1명(1%), 여성이 99명(99%)이었고, 연령은 23세 이하가 98명(98%)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30명(30%)이고, 2학년은 33명(33%)이며, 3학년은 37명

(37%)으로 나타났다. 학제는 전문대가 1명(1%)이고, 4년제가 99명(99%)이었고,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24명(24%), 중·소도시가 64명(64%)이며, 농·어촌 거주가 12명(12%)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치위생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의 학과 선호도는 99명(99%)의 응답으로 학과 선호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치위생학과를 선택한 이유로는 취업이 잘되어서의 응답이 75명(75%)의 응답을 보였다. 치위생학과 학부과정을 마치고 국가고시 합격으로 치위생사 면허증을 소지하게 되는 학생들은 원하는 전국의 병·의원에 지원, 근무를 할 수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100)

variables		category	person(%)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1(1%)
		female	99(99%)
	age(years)	≤23	98(98%)
		≥24	2(2%)
	grade	first	30(30%)
		second	33(33%)
		third	37(37%)
	faculty	college	1(1%)
		university	99(99%)
	residential area	great city	24(24%)
small city		64(64%)	
farming and fishing village		12(12%)	
total			100(100%)

면허를 가진 모든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거나 계속적인 학업의 방향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아 보건계열의 학과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7명(57%)으로 응답하였고, 앞으로 졸업 후 진로(직업)는 전공인 치위생을 반드시 할 것이다가 90명(90%)으로 높아 전공과 연결되는 직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치위생 관련 전공 외에 다른 직업에 종사할 것 같다가 5명(5%)이며, 아직 졸업 후 직업을 결정하지 못했다가 5명(5%)으로 나타났다.

[Table 2] Selection criteria of university & department

variables		category	person(%)
Selection criteria of university, department	reason for choosing	university good	1(1%)
		department of good	99(99%)
	department of reason for choosing	Employment improves	75(75%)
		Stable occupation	9(9%)
		Appropriate aptitude	9(9%)
		many make money	1(1%)
		Around the solicitation	6(6%)
	Satisfaction	Very satisfied	8(8%)
		Slightly satisfied	49(49%)
		Slightly dissatisfied	34(34%)
		Very dissatisfied	9(9%)
	Course	Dental Hygienist	90(90%)
		Other professional	5(5%)
		Still undecided	5(5%)
total			100(100%)

[표 3]에서 보는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변인간의 분석은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변인간의 분석에서 진로결정, 진로미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5$ ). 즉 1,2,3학년 학년 별로 진로결정을 함에 있어 1학년과 2학년, 1학년과 3학년, 2학년과 3학년 진로결정수준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3] Test analysis between the variables grade according to career decision level

Division		first (I)	second (II)	third(III)	Total	
N		30	33	37	100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decision	Mean ± S.D	4.16±.71	3.46±.97	3.54±.92	3.70±.92
		F	5.899			
		p	0.004*			
		Scheffe	I * II, I * III			
	Career Indecision	Mean ± S.D	3.99±.53	3.29±.58	3.46±.64	3.56±.65
		F	11.569			
		p	0.000*			
		Scheffe	I * II, I * III			
	Total	Mean ± S.D	4.01±.51	3.31±.58	3.47±.65	3.58±.65
		F	11.833			
		p	0.000*			
		Scheffe	I * II, I * III			

\* $p < 0.05$

[표 4]는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관한 변인간의 분석으로,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수준에 관한 변인간의 분석에서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 진로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 $p < 0.05$ ), 문제해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 $p > 0.05$ ).

[표 5]는 거주지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변인간의 분석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거주지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변인간의 분석에서 4가지 변인 중 진로상담은 거주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0.05$ ).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집단 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Test analysis between the variables grade according to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ivision		first (I)	second (II)	third (III)	Total	
N		30	33	37	100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arget selection	Mean ± S.D	3.90±.48	3.37±.50	3.41±.50	3.54±.54
		F	11.194			
		p	0.000*			
		Scheffe	I * II, I * III			
	Career information	Mean ± S.D	3.59±.45	3.38±.46	3.27±.59	3.40±.52
		F	3.203			
		p	0.045*			
		Scheffe	I * III			
	Trouble shooting	Mean ± S.D	3.24±.70	3.00±.86	2.98±.81	3.06±.80
		F	1.061			
		p	0.350			
		Scheffe				
	Future plans	Mean ± S.D	3.26±.58	2.78±.61	2.89±.48	2.96±.58
		F	6.431			
		p	0.002*			
		Scheffe	I * II, I * III			
Total	Mean ± S.D	3.62±.43	3.21±.43	3.22±.48	3.34±.48	
	F	8.270				
	p	0.000*				
	Scheffe	I * II, I * III				

\*  $p < 0.05$

[Table 5] Test analysis between the variables residential area according to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ivision		great city (I)	small city (II)	farming and fishing village (III)	Total	
N		24	64	12	10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preparation effort	Mean ± S.D	2.43±.74	2.32±.70	1.84±.64	2.29±.72
		F	2.925			
		p	0.058			
		Scheffe				
	career counsel	Mean ± S.D	2.95±.49	2.80±.50	2.36±.41	2.78±.51
		F	5.706			
		p	.005*			
		Scheffe	I * II, II * III			
	career navigation	Mean ± S.D	2.97±.76	2.86±.95	2.30±1.01	2.82±.93
		F				
		p	0.110			
		Scheffe				
Total	Mean ± S.D	2.69±.51	2.57±.55	2.09±.53	2.54±.56	
	F	5.146				
	p	0.008*				
	Scheffe					

\*  $p < 0.05$

[Table 6] Analysis between the variables residential area according to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grade

		Lack of corporate judgment when I (β)	t	df	F	p	R2
grade		.215	2.30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information	-.234	-1.323	5	7.588	.000	.288
	Trouble shooting	.302	2.430				
	Future plans	.117	.730				
	Total	-.445	-1.594				

1, 2, 3학년 학년에 따라 기업이 판단하기에 본인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부분에 대한 분석 결과, 학년이 오를수록 기업에 대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베타=.215). 자기 효능감에서 직업정보에 해당하는 문항과 기업이 판단하기에 본인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부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직업정보가 적을수록 직업정보가 높은 부류에 비해 부족한 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234). 학년과 자기효능감이 기업이 판단하기에 본인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부

분에 대한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면, 학년과 자기효능감 중 문제해결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1								
2	.638**	1							
3	.044	-.040	1						
4	.068	-.029	.460**	1					
5	.145	.121	.437**	.419**	1				
6	.441**	.455**	.247*	.177	.206*	1			
7	.214**	.232*	.406**	.314**	.265**	.683**	1		
8	-.039	-.063	.414**	.299**	-.011	.460**	.587**	1	
9	.358**	.376**	.307**	.160	.167	.657**	.579**	.440**	1

\*p<0.05, \*\*p<0.01

1. career decision level(career decision) 2. career decision level(career indecision)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preparation effort) 4.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counsel) 5. career preparation behavior(career navigation) 6.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arget selection) 7.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information) 8.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Trouble shooting) 9.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Future plans)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로 하자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표 7]과 같다. 진로준비노력은 진로준비행동과 상관관계계수는 .460이고, 통계적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 책이나 팸플릿, 교육훈련기관이나 프로그램, 설명회, 학원 등을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등의 노력과 진로준비를 위해 친구, 부모, 교수,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것 등의 행동을 보임으로써 진로준비노력과 진로준비행동간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노력과 진로상담은 진로준비행동에서의 진로탐색과는 각각 .437과 .419이고, 통계적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의 직업정보의 변수는 진로결정, 진로미결정, 진로준비행동(진로준비노력), 진로준비행동(진로상담), 진로준비행동(진로탐색), 진로결정자기효능감(목표선택)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접 직장에서의 일들과 업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알아감으로써 진로와 연결되는 진로준비관련과 진로결정을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K 대학에 재학중인 치위생학과 1,2,3학년 106명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결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 총 106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6부를 제외하고 100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들의 척도 기준 실태를 파악하여 치위생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간의 교차분석, 회귀분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간의 하위변인끼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위생학과 전공 대학생들의 성별, 학제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차이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4, 9]과는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여학생의 비율이 99%인 상황에서의 분석 결과이므로 선행연구와 같은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에 관한 변인간의 분석에서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 진로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높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7]. 문제해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p>0.05).

####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로 치위생학과에 재학중인 90%의 학생이 치과위생사를 직업으로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보아 치위생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도 대학생활의 기간 중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혀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을 잘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학과를 선택하여 들어왔다는 높은 응답률인 99%에 맞는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스스로의 목표를 정하여 그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교수와 학생간의 유대 강화와 학생 스스로의 학교생

활에서의 지식과 경험,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Vol. 17, No. 2, pp. 399-417, 2005

**REFERENCES**

[1] Seon Geol Kim, Admitted to university in 2011, MK news, 2011.

[2] Eun Seok Jang, Employment of the basic. joseilbo, 2013.

[3] Ji Young Hwang,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 Mar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Barriers up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Keimyung University, 2007.

[4] Bong Whan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a thesis for a doctorate, 1997.

[5] Hang Ja Kho. (A)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a thesis for a doctorate, 1992.

[6] Mi Na Ko, Jae Hwang Park, A Structural Analysis of Relations among Inner and Outer Career Barrier,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Decision Status for College Student, Korea occupatio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2011.

[7] Preparation Behavior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Vol. 23, No. 3, pp. 141-155, 2010.

[8] Jeong Eun Gang,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omparison between the 4-year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e 2-year female college studen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8.

[9] Eun Young Son, Jin Hee Son.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저자소개**

**이 숙 정(Sook-Jeong Lee)**



- 2001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 2013 : 영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
- 2007~현재 :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구강보건, 의료법규

**이 예 중(Ye Jong Lee)**



- 2002 :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석사)
- 2005 : 가톨릭대학교 노인복지학과(석사)
- 2008~2010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수료)

· 2007~현재 : 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